

광주비엔날레 권위 먹칠

‘신정아 사기극’에 놀아난 재단 책임론 대두

인맥·학연 엮인 이사회 ‘미술권력집단’ 변질 지적

한국 최대 규모의 미술이벤트이자 아시아 최고를 자부해온 광주비엔날레의 권위가 예술감독의 ‘희대 사기극’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관련기사 3면〉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신정아(35·사진) 동국대 교수가 미 예술대 박사는 물론 학사·석사 학위도 없는 정체불명의 인물이라는 사실이 11일 공식 확인되면서 1995년 창설 이후 13년간 공들여 쌓아온 광주비엔날레 위상을 먹칠한 셈이 됐다.

특히 언론이 신씨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기 전까지 비엔날레 재단은 신씨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감안, 제 7회 광주비엔날레를 신씨에게 맡겼다면 회복불능의 국제적 망신을 살 뻔했다.

거짓으로 점철된 한 30대 여성의 사기극에 놀아난 꼴인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감독 후보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검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

과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재단의 실질적인 사령탑인 이사회의 무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재단 이사회는 감독 선정에서부터 비엔날레의 제반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동시에 비엔날레의 장기적 발전을 모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미술권력집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재단은 이사진의 예술 권력화를 막기 위해 제정한 연임제한 규정을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폐하고 스스로 ‘종신이사제’로 정관을 뜯어고치기까지 했다.

특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재단 이사회는 몇몇 이사들의 인맥과 학연에 의존하는 폐쇄성으로 일관, 감독 선정 때마다 잡음을 불러일으켰다.

재단측은 현 이사진 구성 당시 “서울지역의 미술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왔다”고 자랑했으나 이들 이사들



은 오래전부터 서울화단에 파다한 신씨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채 ‘가짜 박사 감독’선임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야기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대다수 지역민들은 감독직무 수행전에 가짜박사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서민 하반기부터 기름값 걱정 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영세사업자의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을 깎아주고 25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등유와 판매부과금을 폐지하는 등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11면〉

정부는 11일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사업자 등의 부담을

화물차 환경부담금 경감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서민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 대해 리터당 23원인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특소세(리터당 134원)도 인하하기로 했다.

1t트럭 등 경유사용 자영업자 화물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깎아주고 이삿짐센터나 용달서비스업 등 유류비 비중이 높은 250여개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단순 경비율을 높여 유가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셀프주유소 활성화나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제도 개편 등을 통해 석유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경차 개발에 세계 지원도 해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긴급구조활동 체험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본부장 박병철)와 전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양형)는 11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에서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폐소생술 시연과 소화전 사용 등 고속도로 터널 화재에 대비한 체험 행사를 가졌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光·정보가전·자동차부품·디자인산업 중점 육성

광주시 5년간 3천억 투입

3단계 산업발전 로드맵

광주시가 오는 2012년까지 세계 3대 광산업 생산메카 도약, 세계 3대 디지털생활가전·부품산업 메카 육성, 글로벌 지능형 자동차 부품 생산도시 조성, 세계 제일의 유니버설 디자인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에 나선다.

광주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3단계 지역산업발전 로드맵(RIRM : Regional Industrial Roadmap·2008~2012년·이하 지역전략산업)을 잠정 확정하고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4대 산업을 2012년까지 중점 육성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지역전략산업은 광산업과 정보가전산업으로, 올해 2단계(2003~2007년)가 끝난다.

광주시는 기존의 자동차·정보가전·광산업에 첨단부품소재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디자인산업·문화콘텐츠산업을 미래성장형 신산업을 추

가해 미래의 광주를 먹여 살릴 기반을 마련하는데 3단계 지역산업발전 로드맵의 초점을 뒀다.

산업별 특화영역은 광산업의 경우 광정보 네트워크, 반도체 조명, 광정밀시스템 등을 집중육성키로 했다. 또 기획단계에서 독립적인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태양에너지산업으로 이름을 바꿔 광산업에 포함시켜 태양전지 개발에 적극 나선다.

정보가전산업은 유비쿼터스 생활가전, 첨단 전자부품 및 모듈, 가전로봇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자동차 전자부품과 금형 분야가 특화 유망분야다.

디자인산업은 조명·가전·의료·운송기기 및 환경기설물 등 유니버설 제품디자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주 중 기획위원회를 열어 특화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다음주 초 최종보고회를 가진 뒤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기획예산처의 타

당성 검증을 거쳐 정부 예산규모가 확정된다.

광주시는 이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2천억원의 국비가 이들 4대 전략산업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시비 1천여억원과 민간자본 등을 보태 ▲세계 3대 광산진국 도약 및 세계 광산업 생산메카 도약 ▲세계 3대 디지털 생활가전·부품 산업 메카 육성 ▲글로벌 지능형 자동차 부품 생산도시 조성 ▲세계 제일의 유니버설 디자인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우일학원 장학 5주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062-385-0723 ~ 0724 ~ 0725 ~ 0726 ~ 0727 ~ 0728 ~ 0729 ~ 0730 ~ 0731 ~ 0732 ~ 0733 ~ 0734 ~ 0735 ~ 0736 ~ 0737 ~ 0738 ~ 0739 ~ 0740 ~ 0741 ~ 0742 ~ 0743 ~ 0744 ~ 0745 ~ 0746 ~ 0747 ~ 0748 ~ 0749 ~ 0750 ~ 0751 ~ 0752 ~ 0753 ~ 0754 ~ 0755 ~ 0756 ~ 0757 ~ 0758 ~ 0759 ~ 0760 ~ 0761 ~ 0762 ~ 0763 ~ 0764 ~ 0765 ~ 0766 ~ 0767 ~ 0768 ~ 0769 ~ 0770 ~ 0771 ~ 0772 ~ 0773 ~ 0774 ~ 0775 ~ 0776 ~ 0777 ~ 0778 ~ 0779 ~ 0780 ~ 0781 ~ 0782 ~ 0783 ~ 0784 ~ 0785 ~ 0786 ~ 0787 ~ 0788 ~ 0789 ~ 0790 ~ 0791 ~ 0792 ~ 0793 ~ 0794 ~ 0795 ~ 0796 ~ 0797 ~ 0798 ~ 0799 ~ 0800

신씨 박사학위 위조 확인 캔자스대 학·석사도 가짜

신정아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의 박사학위가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 이상일 학사지원본부장은 11일 서울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일대는 오늘 신 교수가 동국대에 제출한 예일대 미술사학과 박사학위가 허위임을 밝혀왔다. 아울러 신 교수가 예일대 학생으로 등록한 기록이 없다고 알려왔다”라고 밝혔다.

또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제출한 이력서에 명기된 미국 캔자스주립대 학사학위(BFA), 1995년 경영학 석사(MBA)학위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미 캔자스대(University of Kansas)와 캔자스주립대(Kansas State University)에 따르면 이 두 대학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학생 중 신씨와 이름이 같은 인

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2일 신정아 공동 예술감독 선임 취소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한갑수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씨에 대한 감독 선임 철회와 국내 감독 재선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NEIGE